



정월 대보름

갈색 수수에 폴리페놀 함량이 많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남

을사년 2025년 2월 12일은 음력으로 1월 15일로 정월 대보름이다. 즉, 옛날 음력밖에 없었던 시절에 첫 번째 달의 보름날이나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또 정월 대보름에 설날 새해를 맞은 후 우리 농촌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정월 대보름은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上元), 혹은 '오기일(烏忌日)'이라고도 한다.

흔히 달맛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나, 전통적으로는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기도 했던 명절이었다. 대보름 전날인 음력 14일부터 행하는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다. 원래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축제가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빗 독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옛날에는 큰 축제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보니 불과 15일 전에 있는 설 연휴에 묻혀서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한다.

설날이 집안의 명절이라면 정월 대보름은 마을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대보름의 달빛이 어둠, 질병, 재액을 밀어내고, 마을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풀려나 고기잡이와 농사가 잘되는 것을 기원하는 '동제(洞祭)'를 지내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의 풍년을 비는 각종 제례의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단 노동이 필요한 농촌에서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 대동놀이 등을 벌이며 일 년을 시작하는 날써서 우리 농촌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대동놀이에는 지신밟기, 쥐불놀이, 사자놀이, 줄다리기, 처전놀이 등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음식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겨울철에 구할 수 있는 음식 거리를 모두 동원하여 잘 먹고 노는 날이 정월 대보름이었다. 정월 대보름에 온

갖 음식을 해서 많이 먹는 것은 곧이어 다가올 농사철에 대비하여 영양을 보충 하지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정월 대보름에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부럼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먹는다면, 정월 대보름에는 만사형통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아침 일찍 부럼을 나이 수만큼 깨물어 먹는 관습이 있다. 이를 '부럼깨기'라고 하는데 부럼을 깨물면서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비는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부럼에는 낱밤, 호두, 은행, 잣 등의 견과류가 있다.

둘째, 오곡밥(찰밥)

찰쌀, 기장, 수수, 서리태, 적두를 섞은 풍년을 기원하는 잡곡밥이다. 왜 굳이 오곡밥이나 하면 과거 가을 추수 때 가장 잘 자라던 곡식들을 모아 밥 한 공기에 담으니 다섯 가지의 곡식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에는 여러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붉은 팔과 검은콩은 눈을 건강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으며 허약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 소화가 잘된다. 또 갈색 수수에는 폴리페놀 함량이 많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조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다. 일반 쌀이 아닌 찹쌀을 쓰기 때문에 밥물을 일반 밥을 할 때보다 적게 넣고 조금더 조여주면 좋다.

셋째, 진채(陳菜)

정월 대보름에 찹밥이나 오곡밥과 함께 먹는 묵은 나물을 진채라고 하는데, 지난해에 말려 두었던 배나물, 버섯, 대두황근, 순무, 무, 외파지, 가지고지, 시래기, 호박고지 같은 것을 삶아 먹는 풍습이다. 이와 같은 묵은 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이긴다는 속신이 있다.*

이승우 기자



의통과 해인

이러한 병겁의 발생에 대비하여 증산이 제시한 것이 바로 의통(醫統)이다. "... 성인이 만드셨으니, 먼저 천하의 직(職)을 하고, 먼저 천하의 업(業)을 행하라. 직은 의(醫)요, 업은 통(統)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인의 직이요, 성인이 행해야 할 업이니라. ... (성인내자(聖人乃作), 선천하지 직(先天下之職), 선천하지업(先天下之業), 직자(職者), 의야(醫也), 업자(業者), 통야(統也), 성지직(聖之職), 성지업(聖之業)”) 『대순전경』 4장 129절, "모든 무술(武術)과 병법(兵法)을 멀리하고 비열(卑劣)한 것이라도 의통(醫統)을 알아두라.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은(報恩)졸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5장 11절), "이 뒤에 괴병이 온 세상을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남 방법을 얻지 못하리니, 모든 기사묘법(奇事妙法)을 다 버리고 의통(醫統)을 알아두라." (5장 33절) 등이 관련 구절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차 발생할 병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리체계가 세워지기도 했다.

공우(公友)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이 괴병(怪病)은 세계에서 아주 경험하여 보지 못한 초급성질병(超急性疾病)으로서 전북(全北) 군산(群山)에서 먼저 발생하리라 하며 ... 이 괴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진멸을 당하게 될 터인데, 오직 의통(醫統)으로서만 구치(救治)할 수 있을 뿐이라 하며, 인류가 이 병겁을 극복한 후에도, 비릇(不)평 불합리(不平不合理的) 등 일체(一切) 사회적 해악이 소멸되고 전일이상(全一理想)이 실현되며, 상선사회(上善社會)가 건설될 것이라 한다. ... 이정립(李正立), 『대순철학(大巡哲學)』 〈대법사편집국(大法編輯局), 1947〉

이상사회를 지상에 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고난이 바로 괴병(怪病)이며, 이 괴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신물(神物)이 바로 의통이라는 주장이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병겁이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여져서, 실제 발생 가능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구체적인 발생 장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49일간, 전 세계에는 3년에 걸쳐 병겁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간을 정한 내용도 있다.

어느 날 공사를 보시며 가라사대 이후에 병겁(病劫)이 침입할 때, 군산(群山) 개복(開腹)에서 시발(始發)하여 폭발처로부터 이레 동안을 뱅뱅 돌다가, 서북(西北)으로 펼쳐 튀기던 급하기 이를 바 없으리라. 이 나라를 사십구 일 동안 싹 끌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삼 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나 하시었다 전하니라. 또 가라사대 ... 병겁이 들어설 때에는, 어디보다 먼저 약방(藥房)과 병의원(病院)을 찾아 들어서 병자(病者)가 찾을 바를 얻지 못하리니, 이제 전 인류가 가히 진멸지경(殄滅之境)에 빠지리라. ... 너희들은 의통(醫統)을 알아두라 하시었다 하니라. ... 정영규(丁永奎) 완술, 강석환(姜石畝) 발행,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 (1987)

한국의 보물, 해인<46>

제3부 해인신앙의 전개과정과 종교적 의의

병겁과 관련하여 앞으로 군산 개복동에서 '신(神)불심판'이 시작되면,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신(神)불'의 보이지 않는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데, 오직 증산(甞山)의 도(道)를 닦아 그의 의통(醫統)을 받은 자만이 이 불심판을 면하고 모든 사람을 구제하여, 한국이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중주국(宗主國)이 된다는 신앙도 있다.

용화미륵불교(龍華彌勒佛敎)의 교주 서승영(徐承永)은 증산이 과질을 면하는 약장공사(藥粧公事)로 단주수명(丹朱受命)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훗날 이 단주수명의 용사(用事)를 지장보살(地藏菩薩)인 고씨부인(高氏夫人)에게 맡겼으며,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2년에는 세계에 새로운 교정(敎政)으로 한국이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괴질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때 죽은 사람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면 소생하게 된다고 믿는 의통인 패(醫統印牌)는 환인(桓因)이 환웅(桓雄)에게 준 천부삼인(天符三印)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밖에도 증산교의 여러 교파에서는 의통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나름대로 교리로 정리하고 있다. 의통에 대한 가장 초기의 공식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기유(己酉, 1909년) 6월 23일 야(夜) 즉 선생(先生)이 화천(化天)하시던 전야(前夜)에, 극비리에 의통(醫統)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다시 무진(戊辰) 동지(冬至)에 용화동(龍華洞)에서 기두(起頭)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였다는 전말을 말하며, 인패(印牌) 한 벌을 전수하였으므로 ... 이상호(李祥昊)는 차(此)를 ... 율유해방(乙酉解放) 후(後) 10월 24일에 비릇(不)공게하게 된 것이다. ... 이정립, 『대순철학(大巡哲學)』 (대법사편집국, 1947)

증산이 박공우(朴公友, ? - 1940)에게 전한 의통은 1928년 동짓날 동화교(東華敎)를 창립한 이상호(李祥昊, 1888 - 1966)에게 전해졌고, 이상호는 그 비밀을 간직하다가 1945년 10월에 비로소 일반신도들에게도 공개했다는 것이다.

의통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홍범초(洪凡草)는 「병겁(病劫)과 의통(醫統)」(1990)에서 유도(有導)로서의 의통과



증산교 본부 통천궁의 증산 영정

주술(呪術)로서의 의통으로 크게 나누어, 각 교단의 주장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참다운 도(道)를 가지는 것이 의통이며, 증산의 성훈(聖訓)을 잘 실천하여 난법난도(亂法亂道)에서 벗어나는 일이 말세의 병겁에 대비한 비법인 의통이라는 것이, 유도(有導)로서의 의통을 주장하는 증산교파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삼덕교(三德敎)에서 주장하는 도표(圖表)로서의 의통, 증산법종교(甞山法宗敎)에서 주장하는 "천사(天師)님의 고원(高遠)하신 이상과 광대하신 교의로서 귀병내유(歸病內愈)의 명(命)을 붙이신 것" 등이 있다. 순천도(順天道)에서는 증산의 천지공사(天地公事)에 따라 새로운 천지를 창조한 원리를 간결하게 집약한 후천도(後天圖), 용담도(龍潭圖), 일인도(日印圖), 천지원리도(天地原理圖) 등으로 부르는 도형(圖形)이 의통이라는 믿음이 있다. 또한 보화교(普化敎)에서는 증산이 말한 천지의 원리를 그 교단의 창립주 김경강(金淸江)과 후계자 김백송(金栢松)이 연구하여 만들었다는 금구해도(金龜海圖)가 의통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술로서의 의통의 대표적인 사례는 태을주(太乙呪)라는 증산교단 특유의 주문을 외우는 일이다. 이 밖에도 실물을 지닌 형태로서의 의통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보천교(普天敎)에서 사용했던 녹표(綠表), 안내성(安乃成)이 세운 선도(仙道)의 의통, 증산교본부(甞山敎本部)의 의통 등이 있다.

녹표는 비락을 맞은 대추나무를 지폐(紙幣) 크기로 깎아 가운데 태을주를 새기고, 사방에는 궁(宮)자를 이어서 새기고, 위쪽 양 귀퉁이에는 '궁(宮)자를 새기고, 아래쪽 두 귀퉁이에는 태극(太極)을 새겨서 종이에 찍은 것이다. 이 녹표는 녹지(綠紙)라고도 한다. 녹표를 문 위에 붙이면 천지신명들이 도가(道家)라 하여 그 집안의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김택박사/신종교연구가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 미륵여래(彌勒如來)께서 감로(甘露)의 비를 내리시어 일체 중생의 미혹(迷惑)과 번뇌(煩惱)의 불꽃을 다 멸하신다 ...

(지안호에 이어서)

《열반경 권 2(涅槃經 卷二)》

霍甘露雨 滅除一切衆惑塵焰
 주감로우 멀제일체중흥진염
 감로의 비를 내리셔서 일체 모든 중생의 미혹(迷惑)과 번뇌의 불꽃을 다 멸하여 제거하신다.

一切衆生中最爲勝 一切聖人中最第一
 일체중생중최위승 일체성인중최제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18회》

일체 모든 중생 가운데서 가장 높은 승리자요 일체 모든 성인(聖人)들 가운데 제일이시다.

造大法船 生死海中爲船師
 조대법선 생사해중위선사
 큰 진리(法)의 배를 지어 나고 죽는 이 세상 바다 가운데에서 선장이 되신다.

생로병사(生老病死)에 난파(難破)되어 고해의 바다를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미륵부처님은 커다란 진리의 구조선을 만들어 표류하는 인생들을 건져 주신다.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와 비교되는 동양의 남사고 선생이 기록한 격암유록 예언서에서는 심승진인 정도령이 승리대상(勝利臺上) 즉 승리제단 단상에 계신 분이며, 이분(승리자)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노아방주와 같은 반월선(半月船)을 띄운다고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다.

譬如父母 養育兒子
 비유부모 양육어자
 비유하자면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기르시는 것과 같다.

假師百千無量諸魔 不能侵出如來
 身血 가사백천무량제마 불능침출여래신혈
 백천 무량의 마(魔)가 있어도 능히 미륵부처님의 신혈(身血)에는 침범하지 못한다.

미륵부처님은 피가 썩어서 닳고 피가 썩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하신다. 그리고 피가 썩지 않는 비결을 아시는 미륵부처님의 신혈(身血)에는 무량대수 마귀가 달라붙어 봤자 즉시 소탕박멸되고 마는 것이다. 피를 썩히는 마음(성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근심·걱정, 욕심 등)을 없애주는 미륵부처님의 감로이슬성신을 받아야만 우리 중생들도 미륵부처님과 같은 신혈(身血)을 갖추어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부처의 몸을 이루어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斷煩惱魔 陰魔 死魔
 단번뇌마 음마 사망
 번뇌마귀, 음란마귀, 사망의 마귀가 다 끊어져 없어진다.

譬如黑月 慧星夜賢
 비여흑월혜성야현
 비유해 말하자면 그믐밤에 혜성이 나타난 것과 같다.

譬如耕田 秋耕爲勝
 비여경전추경위승
 비유하면 가을에 밭가는 것과 같으니 그가 이긴자가 된다.

봄에 씨를 뿌리는 지나 여름에 김을 매는 자가 다 같이 귀하지만 가을에 밭가는 자가 마지막으로 거두는 자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비유컨대 석가세존께서 씨를 뿌리셨다면 미륵부처님은 거두는 자가 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생을 구원할 자는 미륵부처님이요 그 분은 가을에 오시는 분이다. 가을(秋)이란 서(西)쪽을 뜻하며 금운(金運)을 나타낸다. 즉, 생미륵부처님은 금운을 타고 오셔서 서방정토(西方淨土)를 이 땅 위에 건설하신다는 뜻이다. 격암유록(格菴遺錄) 출장론(出將論)에는 西湖出生真人(서호출생진인)이라고 했다.

《열반경 권 7(涅槃經 卷七)》

見佛聞法 勤修行 如飲甘露心歡喜
 건불문법근수행 여음감로심환희
 미륵부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부지런히 닦아 행하면 감로수를 마신 것이 되어 마음에 환희가 생긴다.

貪淫 瞋恚 愚癡 覆心 不知佛性
 탐음진애 우치 부심 부지불성
 탐내고 음행하고 성내고 미련한 것이 마음을 덮어서 본래 사람이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가아(假我; 가짜 나)가 인간 마음의 주인으로 되어 행세하고 있다는 말이다. 부심(覆心)이란 '나라는 주체의식이 불심(佛心; 부처님 마음)을 덮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불성(佛性)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구니요 죄요 선악과이다.

復有聖王 出現於世 以覆因緣 得是藥眞正之味
 부유성왕출현어세 이복인연즉득시약진정지미
 다시 성왕(聖王)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복있는 인연으로 이 약(藥)을 얻은즉 진정 그 맛이 감로수의 맛이다.

血脈轉變 而得成乳
 혈맥전변이득성유
 혈맥이 바뀌어 젖이 된다.

젖(乳)은 감로수를 표현해서 말한 것이다. 도통을 이루게 되면 혈색이 바뀌어 흰 우유와 같아진다고 한다.

血則變白 草血滅已
 혈즉변백 초혈멸기
 혈색이 변하여 희게 되면 과거에 있던 피(草血)는 몸에서 없어진다.

소가 풀을 먹지만 초혈이 아닌 흰 우유를 만들어 낸다. 과거에 있던 피는 욕망의 피요 희게 이루어진 피는 부처님의 피이다. 피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데, 탐진치삼독(三毒)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한다.

修一善心 破百種惡 如少火能燒一切
 수일선심파백종악 如少火能燒一切
 하나되는 착한 마음을 닦으면 백 가지 악한 것을 깨뜨린다. 마치 작은 불씨가 능히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과 같다.

(계속*)